

스페인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 구조에서 나타나는 접어대명사 탈락현상*

곽재용

단독/한국의국어대학교

Kwak, Jae-Yong(2007), La omisión de los pronombres clíticos en las Construcciones con Verbo de Apoyo derivadas de los verbos pronominales en español, *Revista Iberoamericana*, 18, pp. 79-104.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representar un análisis morfosintáctico de los pronombres clíticos que se omiten obligatoriamente en las Construcciones con Verbo de Apoyo derivadas de los verbos pronominales en español. La construcción “Juan se refiere a ese tema” se define estructura de verbo pronominal de característica no reflexiva y el agente está expresado junto con el clítico “se”. Por otro lado, la construcción “Juan hace referencia a ese tema”, que se define Construcción con Verbo de Apoyo(cf. Cattell(1984), Grimshaw y Mester(1988), Kwak(2003), Masullo(1992), Saito y Hoshi(1994) y etc.), no puede tener el pronombre clítico que está especificado en la información léxica. En esta construcción, el verbo de apoyo se comporta como un portador de la información de flexión(información eventiva) y no se puede caracterizar como un verbo con significado léxico, lo que no puede omitirse en la estructura derivacional.

El presente trabajo pretende proponer una ulterior elaboración del concepto de predicado complejo para las Construcciones con Verbo de Apoyo derivadas de los predicados pronominales, tanto verbos pronominales como verbos psicológicos, verbos estativos o verbos reflexivos inherentes con o sin frase preposicional. El marco principal en que se desarrolla es de la Morfología Distribuida de Harley y Noyer(1998) y Marantz(1997). En este trabajo ofreceremos una nueva alternativa explicativa para las Construcciones con Verbo de Apoyo adoptando varios estudios como Otero(1999), Alboiu et al.(2004), Pesetsky(1995), Baker y Stewart(1997), Van Hout & Roeper(1998), Keyser y Roeper(1992).

Key words: pronombre clítico/ verbo pronominal/ construcción con verbo de apoyo, 접어대명사/ 대명동사/ 경동사구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37-A00254)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소위 대명동사구조(Pronominal Verb Constructions)에서 파생된 경동사 구조(Light Verb Constructions)가 보여주는 형태-통사론적(morpho-syntactic)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로망스어의 하나인 스페인어는 영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로써 동사의 굴절이 풍부하여 일반적으로 문법적 주어를 음성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풍부한 동사 굴절요소를 갖는 스페인어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인 접어(clitic)라는 요소가 어떻게 대명동사구조에서 언어학적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 대명동사에 의무적으로 출현하는 접어가 어떠한 통사적 원인에 의해 경동사 구조에서는 그 접어가 실현될 수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tero(1999, 1465)에서도 언급하듯이 소수 기존의 연구들은 스페인어 대명동사를 외인적 본유재귀동사(extrinsic inherent reflexive verbs)라고 분석하는 것 보다 내인적 본유재귀동사(intrinsic inherent reflexive verbs)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 스페인어 대명동사구조는 재귀구조(reflexive structure)라기보다는 어휘통사론(lexical syntax)의 측면에서 볼 때 재귀성(reflexivity)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위자 논항(agentive argument)을 갖는 대명동사의 경우, 재귀동사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명동사를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s)로 간주하는 것은 Chomsky(1995, 1998)의 관점에 비추어 봐도 이론적 간극을 보인다. 왜냐하면 대명동사구조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가 전치사구 보어(Prepositional Phrase Complements)를 자주 갖는 속성과 행위자 논항을 갖는 대명동사구조가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s)로써의 자동사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명동사구문에서 필수요소로 작용하는 접어대명사가 그에게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떠한 형태-통사론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Hale & Keyser(1993)의 어휘통사론과 Halle & Marantz(1993)의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의 특성

2.1. 대명동사의 일반적 특성

7대명동사란 일반적으로 동사의 주어와 같은 인칭의 재귀대명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동사들을 지칭한다. 이는 재귀접어를 사용하는 재귀동사가 발달한 스페인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marcharse*(떠나다, 출발하다), *arrepentirse*(후회하다), *avergonzarse*(부끄럽게 생각하다), *alegrarse*(기뻐하다), *asombrarse*(놀라다, 감탄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특히 이 부류는 형태론적으로 재귀접어를 공통으로 취하는 이유로 인해 배타적으로 대명사를 취하는 동사인 대명동사, 재귀동사(reflexive verb) 그리고 상호동사(reciprocal verb)를 함께 동일 부류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cf. Otero(1999)). 대명동사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동사가 의무적으로 대명사와 함께 동사활용을 하는데 가령 *arrepentirse*, *quejarse*, *jactarse*, *dignarse*와 같은 동사는 스페인어에서 ‘yo arrepiento’, ‘ella queja’와 같은 구문을 형성할 수 없고 반드시 접어를 동반하여 ‘yo me arrepiento(나는 후회한다)’, ‘ella se queja(그녀는 불평한다)’로 쓰인다. 이때 이 대명사는 재귀대명사로 간주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대명동사구조에서는 주어에 대한 술어의 의미가 재귀동사의 행위자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해석을 가질 수 없으며 주어와 동사 굴절소와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대명사는 동사구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소인 의무적 출현 형태소로써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어 접어대명사 “SE”에 대한 연구는 그 용례의 다양함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 Mendikoetxea(1997)가 간략하게 제시하는 “se”의 개괄적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a. Juan se peina. (reflexive)
- b. Las hermanas se abrazaron. (reciprocal)
- c. María se lo dio. (dative)
- d. El barco se hundió. (ergative)
- e. María se desmayó. (inherent)
- f. Juan se comió las manzanas. (optional)

Mendikoetxea(1997, 85-86)

(1a)는 타동사 ‘peinar(머리를 빗기다)’라는 동사에 접어가 재귀용법으로 쓰인 구문이고 (1b)는 역시 타동사 ‘abrazar(껴안다)’에 접어가 나타나 상호 구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c)에서는 접어 “se”가 동사 ‘dar(주다)’의 간접목적대명사로 쓰였으며 (1d)에서는 ‘hundir(침몰시키다)’라는 동사에 “se”가 등장하여 능격동사(ergative verb)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1f)는 접어 “se”는 수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완결의 상적 해석을 유발하는 상적 표시자(aspectual marker)로 기능하고 있다.(cf. 곽재용(2004b))

Mendikoetxea(1997)는 (1e)의 “se”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지만 Mendikoetxea는 이를 본유적 용법이라고 하였다. ‘본유적’이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동사가 접어의 출현으로 인해 타동사구문을 재귀성이나 상호성(reciprocity) 그리고 비대격성(unaccusativity)과 같은 성격을 갖도록 유발하는 접어, 즉 문장에서 쓰인 접어가 의미를 바꾸거나 통사적 특성을 규정짓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본유적이자 의무적으로 그 접어대명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명동사와 타동사가 재귀접어를 동반하여 만들어내는 재귀동사와는 구별됨을 보여준다.

(2) a. Juan puede desafiarse (a sí mismo).

b. Juan puede suicidarse (*a sí mismo).

재귀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구 ‘a sí mismo’를 이용한 문법성의 판단을 통해 살펴볼 때 (2)의 예문들이 해석상으로는 주어와 그 행위의 영향이 주어 자신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2a)와 (2b)가 같지만, 통사적으로 재귀형을 도출해낸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동사 ‘desafiar’는 접어 “se”없이 타동사로 쓰이지만 ‘suicidarse’는 언제나 접어를 의무적으로 동반해야하는 대명동사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접어대명사를 동반하는 동사를 대명동사라고 하는데 Cano(1999, 1845)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동사들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3) 대명동사

a. 정신적 행위나 과정

: acordarse, asegurarse, cerciorarse, convencerse, creerse, desdecirse, fiarse, desentenderse, despreocuparse, enterarse, olvidarse.

b. 감성, 느낌

: admirarse, alabarse, apiadarse, arrepentirse, compadecerse, enamorarse, jactarse, preciar-se,

c. 행동

: burlarse, cuidarse, mofarse

한편 직접목적어를 갖지 않고 전치사구를 보어로 갖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Otero(1999, 1469)는 전치사구 동반이 필요 없는 대명동사와 반드시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대명동사를 구분하였다.

(4) a. 전치사구 동반이 의무적이지 않은 대명동사

: acalambarse, acatarrarse, afiebrarse, (a)gangrenarse, agolparse, contonearse, desgañitarse, encadarse, enfurruñarse, ensimismarse, fugarse, rebelarse, vanagloriarse, suicidarse

b. 전치사구 동반이 의무적인 대명동사

: atenerse a, atreverse {a/con/contra}, dignarse a, abstenerse de, incautarse de, querellarse (con), obstinarse en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류적 특성을 갖는 대명동사가 어떠한 형태/통사론적 특징을 문장구조에서 보여주는 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2.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와 관련된 접어의 특성

Cano(1999)가 (3)과 같이 분류한 대명동사와 Otero(1999)가 (4)와 같이 분류한 대명동사는 그 분류기준이 각각 그 의미와 전치사구 보어 출현과 관련됨을 보았다. 물론 (3)에 열거된 동사들이 대명동사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들은 접어대명사가 없는 형태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의 대명동사들의 속성은, 앞서 (1)의 예문들과 달리, 접어대명사의 유무로 인해 야기되는 타동사/자동사의 통사적 교호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3)에 나타난 대명동사는 접어를 결하는 타동사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 동사로, 가령 접어대명사가 없는 타동사 “alabar”는 “칭찬하다” 또는 “찬미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se”가 동반되는 대명동사 “alabarse”는 위 (4a)에 제시된 대명동사 “vanagloriarse”와 같은 뜻인 “...에 대해 자만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다른 어휘동사로 쓰인다).

이러한 대명동사는 먼저 (2)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재귀접어를 타동사가 동반하여 만들어지는 재귀동사와는 구별됨을 보여준다.

- (2) a. Juan puede desafiarse (a sí mismo).
- b. Juan puede suicidarse (*a sí mismo)

둘째로 재귀동사와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타동사가 재귀접어를 사용하여 외재적 소유구문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달리 대명동사는 자신의 직접목적어를 취하며 외재적 소유구문은 도출할 수 없다.

- (5) a. Juan lavó los platos.
- b. Juan se lavó las manos.
- c. Juan le lavó las manos a María.
- (6) a. Me acalabré la muñeca.
- b. * Le acalabré la muñeca.

(5a)는 타동사 “lavar(씻다)”의 타동사형으로 이 동사가 신체의 일부와 관

i) 이러한 대명동사는 전치사구나 형용사 혹은 부정사 명사 등 각 동사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보어를 취하면서 접어를 갖지 않는 동사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동사로 쓰인다. 그 예로 (3)에 제시된 일부 동사들의 그러한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 acordar(의결하다) / acordarse de(...에 대해 생각해 내다)
- ii) asegurar(안심시키다) / asegurarse de (...에 대해 확인하다)
- iii) cerciorar(...의 진실을 보증하다) / cerciorarse de (...을 확인하다)
- iv) convencer(납득시키다) / convencerse de (...에 대해 납득하다, 깨닫다)

련된 직접목적어를 취할 경우 재귀접어 “se”를 동반하여 (5b)와 같은 재귀구문을 이끈다. 그러나 이 신체의 부위가 주어와 다른 대상일 경우 간접목적 대명사접어 “le”를 사용하여 (5c)처럼 외재적 소유구문을 이끌어 낸다(cf. 박재용(2004a)). 이와 달리 대명동사구조인 (6a)에 나타난 접어대명사는, (5b)의 재귀접어와 달리,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동반함에 따라 나타나는 타동사형에서 파생된 재귀동사의 접어가 아니며 대명동사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현하는 접어대명사이다. 따라서 타동사에서 파생되는 외재적 소유구문구조인 (5c)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6b)는 자연히 비문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명동사의 특징은 전치사구를 보어로 동반하는 경우이다. 앞서 Otero(1999)가 대명동사를 전치사구를 보어로써 의무적으로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분류한 것을 볼 때, 실제로 대명동사는 전치사구를 자신의 보어로 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²⁾.

(7) a. Pedro se refiere a ese tema.

b. Juan se jact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c. El alcalde se querelló contra los periodistas por calumnias.

위 (7)의 예문들에 나타난 전치사들 “a”, “de”, “contra” 등은 각각 “referirse”, “jactarse”, “querellarse”와 같은 대명동사의 전치사구 보어를 이끄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전치사들은 동사의 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유생성(animacy)관련의 스페인어 전치사 “a”와 같은 요소나 명사화 구조(nominalization)에서 명사의 보어로 나타나는 요소의 고유격(inherent Case)과 관련되는 스페인어 전치사 “de”와 영어의 “of”, 그리고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contra”와 같은 경우와는 구별되는 전치사들이며, 이는 이러한 대명동사는 전치사가 그의 구성소로써 같이 문장 내에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치사구를 갖는 동사들 중, 가령 스페인어의 전치사구 동반동사(Prepositional Verbs)는, Espinosa(1997)에서도 지적하듯이, 대명동사의 “se”와 같은 접어가 나타날 수 없다.

2) 물론 전치사구를 자신의 보어로 취하지 않고 대격목적어를 직접 취하는 예가 (6a)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8) a. Comió del plato.
 b. * Se comió del plato.
 (9) a. Bebió de la botella.
 b. * Se bebió de la cerveza.

Espinosa(1997, 331)

즉 대명동사가 전치사구를 보어로 가질 수 있지만 전치사동반 동사가 접어 대명사를 갖는 것은 (8)-(9)의 예문들에서 볼 때 상적 해석(aspectual interpretation)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8a)와 (9a)의 동사는 비완결의 동사들으로써 대격을 갖는 목적어를 가지면 접어 “se”가 등장해도 정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8)-(9)의 전치사구 동반 동사는 비문으로 간주된다.

- (10) a. Juan se comió el plato.
 b. Pedro se bebió la cerveza.

이러한 예문들이 시사하는 것은 대명동사의 접어 “se”가 앞서 (1f)에서 보여주는 특성인 완결의 상적 표시자 “se”와도 무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 동사가 장소의 전치사구와 함께 쓰여서 나타나는 접어 “se”는, Espinosa(1997)에 따르면, 비록 전치사구를 동반 하여도 이는 장소(locative)의 전치사구로 인한 접어의 중복현상(Clitic Doubling)이므로 본 연구가 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대명동사와는 무관하다.

- (11) a. * María va de la iglesia.
 b. María se va de la iglesia.

Espinosa(1997, 312)

끝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연구 대상인 대명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경동사 구조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접어의 특징에 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명동사의 특징은 문장으로 이루어 질 때 접어대명사와 동사 그리고 그와 동반이 가능한 전치사구들이 각각의 구성소로 등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의 관점에서 접어의 의무적 출현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동사가 해당 경동사구조로 표현되는 경우는 접어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12) a. Pedro se refiere a ese tema. (= (7a))
 b. Pedro (*se) hace referencia a ese tema.
- (13) a. Pedro se burla de mí.
 b. Pedro (*se) hace burla de mí.
- (14) a. Juan se jact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 (7b))
 b. Juan (*se) hace jactanci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위의 (12)-(14)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대명동사는 자신의 경동사구조에서 접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Otero(1999, 1465)는 스페인어 대명동사구조를 내인적 본유재귀동사(*intrinsic inherent reflexive verbs*)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의 주장이 옳다면 대명동사의 그 의미적 특성이 본유적임을 나타내는 재귀접어 “se”의 출현은 의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달리, Kwak(2003, 326-330)에서 제시한 (15)-(17)의 예문에서 보듯이, 타동사에서 파생된 재귀동사는 자신의 경동사구조에서 재귀접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 (15) a. Juan (le) dio un baño al abuelo.
 b. Juan se dio un baño.
 c. Juan tomó un baño.
- (16) a. John gave the grandfather a bath.
 b. * John gave a bath.
 c. John took a bath.
- (17) a. Juan alojó a María en un hotel.
 b. María se alojó en un hotel.
- (18) a. Juan dio alojamiento a María en un hotel.
 b. * María se dio alojamiento en un hotel.
 c. María tomó alojamiento en un hotel.

재귀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는 접어가 (15b)의 경동사구조에서는 나타나고 (15c)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불규칙적인 분포를 보이는 반면, 대명동사구조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에서는 (12)-(14)에서 보듯이 접어대명사의 출현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접어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16b)와 달리 스페인어에서는 (15b)가 가능하다. (17b)의 “alojarse”는 재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18b,c)에서 보듯이 경동사구조에서 접어의 출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17b)는 (18c)의 경동사구조와의 비교의 결과로 얻은 특성에 따라 대명동사일까? 본 연구는 (17b)의 구문은 재귀구문임을 보이고, 경동사구조 (18c)는 (18b)의 문장이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이유와 (12)-(14)의 각 경동사구조가 접어대명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명동사의 접어대명사는 결국 재귀접어가 아니라는 점과 상적 표시자로 기능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본유적으로 어휘적으로 선택되어 나온 구성소임에도 불구하고 경동사구조에서 접어대명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3.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의 형태-통사적 특성

3.1. 대명동사의 형상구조에서 나타나는 접어의 위치

스페인어의 대명동사는 전통문법에서 자신의 접어대명사의 출현으로 인해 주로 재귀적 용법으로 분석되어온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명동사는 재귀동사와 성격과는 구분되며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재귀동사와의 비교에서 형태/통사론적 차이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구문들의 의미역적 특성, 즉 형상-구조적 특성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까?

먼저 우리는 대명동사들 가운데 비능격동사, 즉 행위자 외재논항을 갖고 대격 내재논항을 갖지 않는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의 예문들을 다시 보자.

- (7) a. Pedro se refiere a ese tema.
 b. Juan se jact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c. El alcalde se querelló contra los periodistas por calumnias.

(7)에서 각 예문들의 주어는 행위자의 해석을 가지므로 Chomsky(1995)가 가정하는 vP구조의 지정어위치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vP구조의 지정어위치에 술어의 주어가 나타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vP구조를 갖지 않아 행위자논항을 갖지 않는 비대격동사의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아래와 같은 대명동사들은 주어의 의미역적 특성이 행위자역을 갖는 논항으로 해석되기엔 무리가 따른다.

- (19) a. Juan se suicidó.
 b. Juan se refrió.

(19a)의 경우 “자살하다”의 주체는 결코 행위자가 재귀접어 “se”를 동반하여 타동사의 자동사화 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19b)의 경우는 “감기에 걸리다”는 행위자보다는 오히려 경험자(Experiencer)의 의미역으로 간주된다. 이들 경동사구조는 주어의 의미역적 특성과 별도로 경동사화 함께 명사술어(predicate nominal)와 함께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를 형성할 경우 (20a)의 경우는 반드시 관사를 동반하지만 (20b)의 경우 관사를 동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0) a. Juan cometió un suicidio.
 b. Juan tuvo resfriado³⁾.

이러한 관사 동반 여부의 비불규칙성 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은 (20)에서 보듯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이러한 경동사구조에 본유적으로 선택되어 나

3) 한편 (20b)와 같은 스페인어 경동사 구조는 관사를 동반하지 않는 구조가 관사 출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명사술어가 수식어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i) Juan tuvo un resfriado l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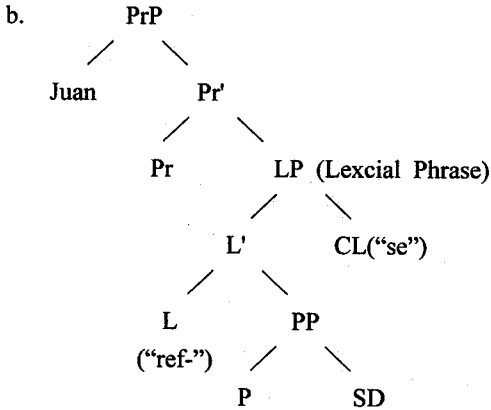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Demonte(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타난 접어 “se”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는 경동사화구조에서 관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명동사가 경동사구조를 취할 경우 접어의 출현은 제한된다. (7)의 예문들이 경동사구조로 바뀐 (21)을 보면 더욱 그 사실이 구체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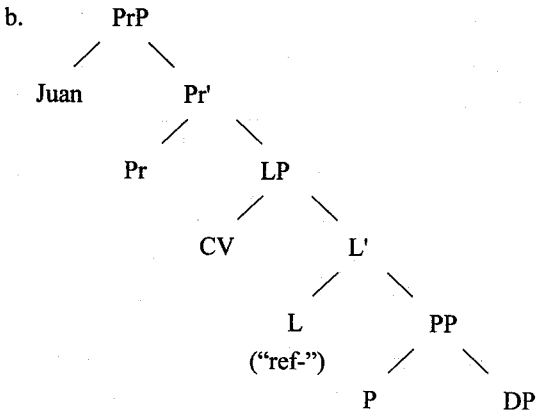
- (21) a. Pedro (*se) hace referencia a ese tema.
- b. Juan (*se) hace jactancia de su habilidad en los negocios.
- c. El alcalde (*se) formuló una querrela contra los periodistas por calumnias.
- (22) a. Pedro se acataró.
- b. Pedro cogió un catarro.
- c. Pedro tuvo catarro.
- (23) Juan cogió un resfriado.

(20)-(23)의 예문들은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가 관사를 수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들 모두 대명동사에서 동반하던 접어가 나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Halle & Marantz(1993)의 분산형태론과 Chomsky(1995)의 최소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Kwak(2003)에 따르면, 무관사 명사술어를 갖는 경동사구조와 관사를 동반한 경동사구조를 통사적으로 달리 분석한다. Kwak(2003)은 Harley & Noyer (1998)의 동사구 분열구조(VP split-structure)를 가정하고 이 분열구조를 어휘근(lexical root)과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동사가 행위자를 갖는 타동사나 비능격동사의 경우 이 기능범주의 지정어에 행위자논항이 생성된다고 본다. 이 기능범주에 대해 Kwak(2003)은 Bower (1993)의 Pr (=Pred)을 Chomsky (1995)의 “v” 그리고 Kratzer(1994)의 “Voice”와 비이질적 성격의 기능범주로 간주하고 대명동사의 구조와 무관사 명사술어로 이루어지는 경동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4) a. Juan se refirió a eso.



(25) a. Juan hizo referencia a eso.



Van Hout & Roeper(1998)는 Keyser & Roeper(1992)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Hale & Keyser(1993)가 동사의 보어 위치와 같이 동사의 오른쪽에 추상적 접어(abstract clitic)의 위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Van Hout & Roeper는 어떤 요소가 접어의 위치에 생성 될 경우 추가적 접어의 출현을 막는다고 한다. 이러한 논거에 착안하여 Kwak(2003)은 대명동사 ‘referirse a’는 자동사구문으로 비능격동사의 성격을 가지며 내재논항이 없이 전치사

구를 보어로 갖는 구조를 (24b)처럼 가정하고 접어 “se”는 어휘근이 선택한 요소로 자신의 보어위치에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어휘근에 의해 선택되는 접어 “se”는 이 어휘근이 동사로 문자화되는 경우 선택되는 요소로 어휘근이 상위의 기능범주 “Pr”로 인상되는 구조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동사구조의 경우 어휘근은 상위 기능범주 Pr로 인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 (in-situ)에서 명사로 문자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는 어휘근이 접어 “se”를 자신의 보충어 위치에 선택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Kwak(2003)은 (25b)의 형상구조를 제안하는 가운데 경동사 “hacer”는 어휘근 “ref-”가 선택하는 요소의 위치에 나타는 것으로 어휘근이 경동사를 선택하는 것이 접어 “se”의 선택을 막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경동사를 접어동사(CV: clitic verb)로 규정하고 (25b)의 구조를 제안한다.

Jackendoff(1974)와 Cattell(1984)의 복합술어의 가정에 기초한 경동사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휘술어 즉 명사술어가 경동사로 포함(Incorporation)되는 구조로 보는 Baker(1988), Saito & Hoshi(1994), Di Sciullo & Rosen(1990), Masullo(1996)의 분석이나 Grimshaw & Mester(1988)와 같은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등의 기제(mechanism)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연구들 모두 명사술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보어에 대해 의미역을 할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명사술어가 경동사와 함께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Kwak(2003)의 제안은 경동사구조의 명사술어는 어휘근 자체가 독립적으로 모든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키며 경동사는 명사술어가 가지지 못하는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의 자질들을 나타내는 기능적 요소로 문장의 도출과정에서 지연삽입(Late Insertion)을 통해 문자화되는 요소로 보았다. 위 (24)의 대명동사나 (25)의 경동사구조는 어휘근이 도출과정에서 술어으로써 모든 의미역 조건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한 통사적 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어휘근이 도출과정에서 모든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대명동사의 구조나 경동사구조 모두 어휘근과 기능범주 Pr에 의해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키며 단 경동사구조에서 어휘근의 보어는 일반타동사의 경우 술어의 명사적 성격으로 인해 명사화구조(nominalization)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경우 전치사 “de” 그리고 영어의 경우 “of”가 삽입되는 것이며 (24)-(25)에서 나타나는 어휘근 “ref-”의

경우는 본유적으로 전치사 “a”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Kwak(2003)의 제안은 한편 관사가 동반되는 경동사의 구조는 (25b)의 구조와 달리 경동사가 기능범주 Pr의 핵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15)의 경우처럼 어휘근 “bañ-”으로 이루어지는 경동사구조의 경우 접어를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5b) Juan se dio un bañ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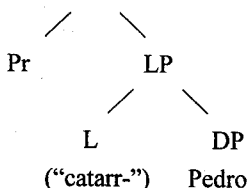
(15c) Juan tomó un baño.

물론 주지하는 바대로 어휘근 “bañ-”은 순수 대명동사로 사용되는 요소는 아니다. (15b)는 타동사의 어휘근으로 나타난 요소가 재귀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이며 동일한 의미인 (15c)의 문장은 접어 “se”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2b)와 (23)은 비능격동사가 아닌 비대격동사의 성격을 갖는 대명동사에서 파생되어 관사를 동반하는 경동사 구조로 이들 역시 접어 “se”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Kwak(2003)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관사를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동사구조 모두 그 경동사의 실현위치는 기능범주 Pr의 핵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 Pr의 위치가 접어의 출현과 관련하여 경쟁하는 위치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비능격동사의 형상구조를 갖는 대명동사나 비대격동사의 형상구조를 갖는 대명동사 모두 접어가 기능범주의 핵 위치에서 문자화되는 요소이며 이 위치는 경동사의 출현과 접어의 출현이 경쟁을 하는 위치로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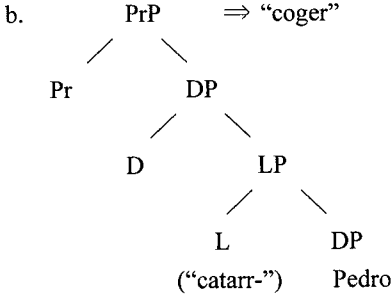
(26) a. Pedro se acataró.

b. Pedro tuvo catarro.

c. PrP $\Rightarrow$ CL(“se”) / 경동사 “tener”



(27) a. Pedro cogió un catarro.



(26)과 (27)의 구조는 기능범주 Pr이 [-CAUSE]의 성격을 갖는 BECOME의 자질로써 행위자논항을 갖지 않는 어휘술어를 자신의 보어위치에 갖는 비대격동사의 형상구조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6c)에서 어휘근 “catarr-”가 상위의 기능범주 Pr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복합핵 [Pr+“catarr-”]를 이루고 이는 접어 “se”가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환경을 이루어 이후 상위의 기능범주 T로 인상하여 “se acatarró”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휘근 “catarr-”가 기능핵 Pr로 인상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명사 “catarro”로 문자화의 결과가 얻어지게 되고 따라서 어휘근이 상위 기능범주인 Pr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동사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써 접어 “se”의 출현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때 Pr에서는 “tener”가 경동사로 문자화된다. 어휘근이 동사로 문자화되는 경우는 해당 어휘근이 기능범주 Pr로 이동하여 동사의 굴절요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되지만 어휘근이 굴절정보를 형태론적으로 취하지 않고 의미적 혹은 의미역적으로 술어로만 기능하면 이 술어의 굴절정보, 즉 시제(tense), 인칭(person) 그리고 수(number)를 나타내는 요소는 Hale & Keyser(1993)의 경동사와 같은 맥락에서 외현적으로 Pr의 위치에서 경동사의 형태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가정에 비추어 볼 때 (27b)의 구조는 어휘근 “catarr-”가 기능범주 D의 보충어로 나타나며 Pr이 취하는 어휘술어는 (26c)의 구조와 달리 (27b)에서는 DP가 어휘술어로 나타나고 이 어휘술어 DP는 (26c)처럼 어휘근이 제자리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un catarro”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어휘술어와 함께 경동사구조를 만드는 경동사는 Pr에서 “coger”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tener”로 문자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경동사의 선택은 관용적 선택(idiomatic selection)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용 표현인 “dar la lata”의 구성소인 “la lata”가 동사 “dar”와만 나타나는 것처럼 어휘근 “catarr-”가 제자리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Pr의 보충어위치에 어휘술어가 DP로 나타나는 경우 (27b)처럼 “coger”가 경동사로써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관사를 동반하지 않는 어휘술어가 나타나는 경동사구조의 도출은 (26c)와 같은 구조이며 이때 경동사는 Pr에서 “tener”로 문자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관사를 동반하는 경동사구조나 관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동사구조 모두 경동사의 실현위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경동사의 통사적 특징이 술어의 시제, 수와 인칭자질을 나타낸다는 동일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사의 출현여부와 관련하여 경동사의 출현위치를 달리하는 종전의 Kwak(2003)의 제안보다 훨씬 이론적 간결함을 꾀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안이 행위자논항을 갖는 비능격동사나 비대격동사의 성격을 갖는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3.2. 논의의 확장

3.2.1. 형상구조에 따른 접어출현제약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Juan bañó al abuelo.
 b. Juan dio un baño al abuelo.
 c. El abuelo está bañado.
 d. El abuelo se bañó.

4) O'Grady(1988)은 관용표현(idiom)의 구성요소들은 일련의 연쇄(chain)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Continuity Constraint”로 정의한다. 그가 제안하는 제약은 일종의 문법규칙으로 핵과 핵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연쇄라는 개념으로 관용표현에 사용된 요소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경동사구조내에 나타나는 경동사와 명사술어의 관계들 역시 기저 병합구조에서 핵 범주들간의 상호 선택관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는 O'Grady가 제안하는 제약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한다.

e. El abuelo tomó un baño.

(29) a. Juan alojó al abuelo en un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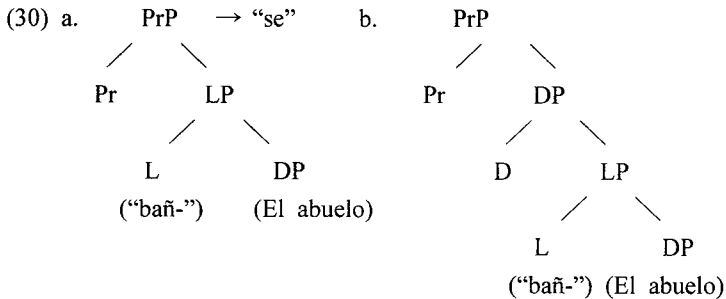
b. Juan dio alojamiento al abuelo en un hotel.

c. *? El abuelo está alojado en un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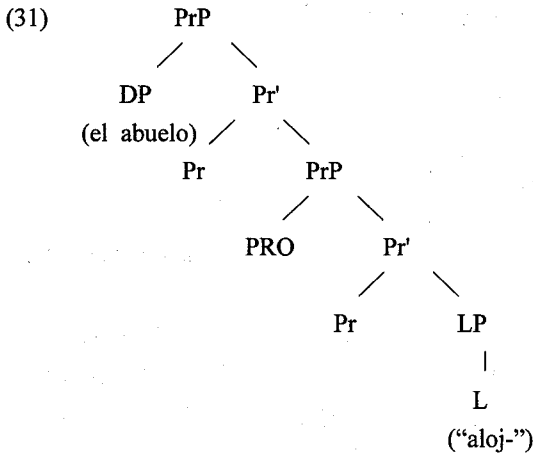
d. El abuelo se alojó en un hotel.

e. El abuelo tomo alojamiento en un hotel.

(28a) 타동사 “bañar”는 자신의 목적어가 피영향을 가지며 이러한 해석은 (28b)의 경동사구조에서도 동일하며 상태수동구문인 [estar+pp]의 피동주어로 (28c)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29a)의 타동사 “alojar”는 자신의 목적어로 취하는 명사구가 (29c)에서 제시된 바처럼 상태수동의 피동주어로 나타날 수 없다. 곽재용(2003)에 따르면 (28d)의 경우 비대격구조를 가지며 하나의 vP구조를 가정하고 (29d)의 경우 이중 vP구조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vP를 대신하여 앞에서 논의를 전개해오면서 사용한 PrP로 표기하고자 한다.



곽재용(2003)에 따르면 (30a)의 구조는 어휘근 “bañ-”이 기능범주 Pr로 인상되고 접어 “se”가 문자화가 이루어지는 비대격 채귀동사구조이며 (30b)는 경동사구조 “tomar un baño”의 도출구조로 어휘근 “bañ-”의 비대격 술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0b)는 어휘근이 상위의 기능범주로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기능범주에서 경동사가 문자화됨에 따라 접어 “se”의 출현을 막는다. 한편 곽재용(2003)은 (29)의 “alojarse”의 경우 (30a)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이중 PrP 구조를 제안한다.



(30a)의 구조는 어휘근의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접어의 실현이 이루어지지만 이와 달리 제자리에서 어휘근이 과거분사로 실현되는 경우는 또 다른 경동사인 “estar”가 기능범주의 핵 위치에서 실현되어 (28c)와 같은 상태수동구문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31)의 구조는 이중 PrP구조에서 상위의 Pr의 기능범주의 지정어위치에 행위자의 의미역을 갖는 논항으로 나타나는 DP “el abuelo”는 상위의 Pr이나 하위의 Pr 모두 자신의 지정어위치에 행위자 논항을 가지므로 기능범주의 특성상 BECOME으로 실현되지 않아 (29c)와 같은 수동구문을 이끌어낼 수 없다. 광재용(2003)에 따르면, 재귀동사 “alojarse”의 도출구조인 (31)은 하위 “PrP”에는 외현적으로 내재논항이 병합되지 않는 구조이며 “aloj-”가 하위 “Pr”로 인상하고 외재논항으로 PRO가 병합됨과 아울러 [Pr+“aloj-”]는 상위 “Pr”로 이동되어 상위 국면인 PrP에서 접사 “se”가 문자화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tomar alojamiento”와 같은 경동사구조는 어휘근 “aloj-”이 상위의 기능범주 Pr이나 하위의 Pr로 인상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alojamiento”로 문자화가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인상된 요소를 갖지 않는 이 하위의 Pr은 상위의 Pr로 인상하여 복합핵 [Pr+Pr]을 이루어 경동사 “tomar”로 문자화가 이루어지므로 접어 “se”의 출현을 막게 된다.

3.2.2.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상태수동구문

다음 예문을 보자.

- (32) a. Juan se ensimismó.
b. Juan está ensimismado.

Otero(1999, 1470)

Otero(1999)의 정의에 따르면 “ensimismarse”는 본유적 채귀동사로 비대격 동사의 특징을 보이며 (32b)처럼 [estar+pp]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들은 원래 대명동사로 사용될 경우 어휘근에 의해 선택된 접어가 경동사구조에서 나타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대명동사는 위 (32b)의 경우처럼 상태수동구문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접어의 출현을 막는 것을 스페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 (32a)의 대명동사 “ensimismarse”는 자신의 주어가 행위자의 해석과는 무관하며 (32b)의 상태수동구문 역시 행위자 논항을 갖지도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동사 “obstinarse” 역시 동일한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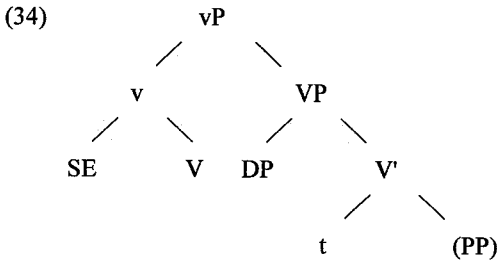
- (33) a. Juan se obstinó en su error.
b. Juan está obstinado en su error.

어휘적 선택을 통해 의무적으로 전치사 “en”을 동반하는 (33a)의 동사 “obstinarse”는 [estar+pp] 구조에서도 전치사를 동반하고 (32b)의 구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원래의 동사형 “obstinarse”가 문장에서 동반하는 접어 대명사 “se”는 나타나지 않는다⁵⁾.

5) “arrepentirse”와 “enamorarse” 역시 상태구문으로 쓰이는 경우 아래의 예문처럼 접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i) a. Me arrepiento de todos mis pecados.
b. Estoy arrepentido de todos mis pecados.
ii) a. Se enamora de su rival.
b. Está enamorado de su rival.

Alboiu et al.(2004)은 본유적으로 재귀대명사를 취하는 동사는 외현적으로 전치사구를 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전치사구를 마치 내재논항처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전치사구를 내재논항이라고 제안하고 본유적 재귀동사를 대명동사(pronominal verb)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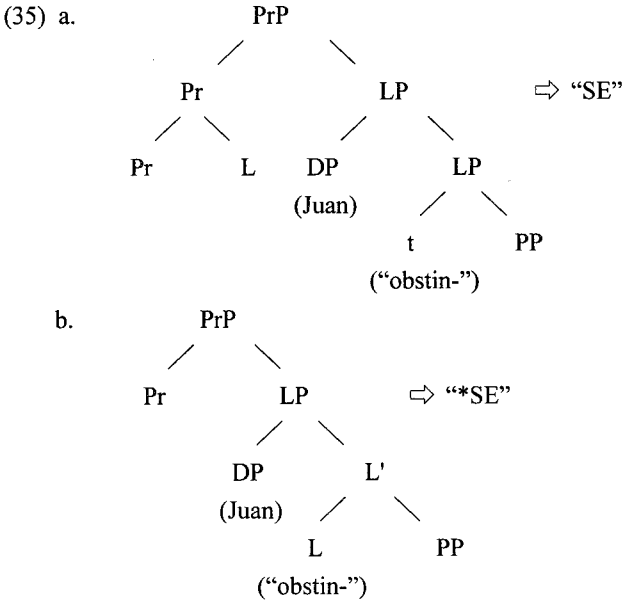


(34)의 구조는 동사술어의 주어가 기능범주 “vP”의 지정어(Specifier)가 아닌 어휘동사의 투사인 VP의 핵 V에 의해 선택되어 내부에 생성되며 행위자 논항을 갖지 않는다.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전치사구 보어(PP-complement)를 (34)와 같은 구조적 위치에 가정하는 것은 전치사구 역시 동사의 보어위치에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estar+pp] 구조에서 나타나는 과거분사는 일반 형용사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성과 수의 변화를 하는 측면에서 형용사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본 연구는 비대격동사의 특성을 갖는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estar+pp] 구조 역시 행위자를 갖지 않더라도 대상역 논항 혹은 경험자논항은 내재논항의 위치에 나타나 형상-구조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하고자 한다(cf. Pesetsky(1995)). 즉 이는 본유적 재귀동사인 대명동사의 논항구조가 형상-구조적으로 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estar+pp]가 Baker(1988)의 UTAH의 견해처럼 동일한 의미역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⁶⁾.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휘근이 동사로 문자화되는 경우는 반드시 접어를 실현하고 따라서 접어의 출현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어휘근이 상태수동구문의 요소로 문자화되는 것은 결국 어휘근의 비동사적 문자화화가 접어의 출현을 막는 형태-통사적 환경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다.

6) Baker(1988, 46)의 UTAH(Uniformity of Theta Assignment Hypothesis)는 (23)의 두 형상구조



본 연구는 Baker & Stewart(1997)의 상태술어에 관한 분석⁷⁾을 바탕으로 어휘근 “obstin-”이 상위의 기능범주인 Pr로 인상하는 경우 접어 “se”가 실현되고 그 어휘근은 동사로 문자화가 이루어져 (35a)와 같은 문장을 도출한다고 본다. 한편 (35b)처럼 어휘근 “obstin-”이 상위의 기능범주인 Pr로 인상하지 않고 병합의 기저위치에서 문자화되는 경우는 이 어휘근이 형태-통사적

와 가정과 상충되는 모습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Uniformity of Theta Assignment Hypothesis: Identical thematic relationships between items are represented by identical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ose items at the level of D-structure.

7) Baker & Stewart(1997)는 BE를 Bowers(1993)가 Pred라고 명명한 추상적 요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i) a. Stative verbs are semantically equivalent to adjectives plus BE.

b. Stative verbs are derived by the conflation of an adjective into BE.

그들의 이러한 가정에 비추어볼 때 어휘근이 과거분사, 명사, 동사로 각각 서로 다른 문자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어휘근이 자신의 보어로 취하는 요소는 동일한 의미역적 특성화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으로 동사로 나타나는 환경에 있지 않으므로 접어의 출현을 허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어휘근은 상위로 이동하지 않고 기저병합위치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상위의 기능범주 Pr에는 상태술어의 통사적 환경에 부합하는 “estar”의 문자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어휘근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범주의 위치에서 경동사가 실현되는 것과 동일한 도출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맺는말

본 연구는 스페인어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가 보여주는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대명동사의 어휘근이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접어대명사가 동일 어휘근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원인을 분산형태론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타동사에 재귀접어 “se”가 첨가되어 사용되는 타동사의 재귀적 용법과 달리 본유적으로 접어 “se”를 동반하는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경동사구조에서 그 접어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어휘근이 구문의 도출과정에서 보여주는 문자화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스페인어 상태구문인 [estar+pp]구문에서도 나타나는 접어출현의 제약까지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명동사에서 파생된 일반 경동사구조나 상태수동구문 모두 어휘근이 도출과정에서 상위의 기능범주로의 인상이 없이 기저 병합위치에서 문자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자화 조건이 동반되는 도출구조에서는 기능범주의 핵 위치에서 경동사나 계사의 문자화가 접어의 출현과 상보적 분포를 드러내는 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재용(2003), “사역타동사와 교호를 갖는 일부 재귀동사의 이중vP구조 가능성에 대한 통사적 상적 접근”, 『스페인어문학』, 28, 105-118.
- _____(2004a), “외재적 소유구문과 유생성에 관하여”, 『스페인어문학』, 32, 11-31.
- _____(2004b), “논항의 한정성과 양화성 그리고 상적표시자 <SE>의 실현”, 『스페인어문학』, 33, 67-85.
- Alboiu, G. et al.(2004), “SE and the Unaccusative-Unergative Paradox”, in Martine Coene, Gretel de Cuyper, and Yves D’Hulst (eds.), *Current Studies in Comparative Romance Linguistics, Antwerp Papers in Linguistics* 107, Universiteit Antwerp, 109-139.
- Baker, M. C. & O. T. Stewart(1997), “Unaccusativity and the Adjective/Verb Distinction: Edo Evidence.” *Proceedings of NELS*, 27,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33-48.
- Bosque, I.(1993), “Sobre las diferencias entre los adjetivos relacionales y los calificativos”, *Revista Argentina de Lingüística*, 9, 9-48.
- _____(1996), “Por qué determinados sustantivos no son sustantivos determinados. repaso y balance”, in I. Bosque(ed.), 13-119.
- _____(ed.)(1996), *El Sustantivo sin determinación*, Madrid, Visor.
- _____ & V. Demonte(eds.)(1999),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Tomo I, II, III, Madrid, Espasa.
- Bowers, J.(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Cano, A. R.(1981), *Estructura sintáctica transitiva en el español actual*, Madrid, Gredos.
- _____(1999), “Los complementos de régimen verbal”, in I. Bosque & V. Demonte(eds.), 1807-1854.
- Cattell, R.(1984), “Composite Predicates in English”, *Syntax and Semantics* 17, Academic Press.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WPL*, 15, Cambridge, Massachusetts.
- _____(1999), “Derivation by Phase”, *MITWPL*, 18, Cambridge, Massachusetts.
- De Miguel, E.(1992), *El Aspecto en la sintaxis del español: Perfectividad e impersonalidad*, Madrid, Ediciones de la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Demonte, V.(1987), “C-Command, Preposition and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 18, 147-157.
- _____ (1988), "Remarks on Secondary Predicates: C-command, Extraction, and Reanalysis", *The Linguistic Review*, 6, 1-39.
- _____ (1989), *Teoría sintáctica: de las estructuras a la rección*, Madrid, Síntesis.
- _____ (1991), *Detrás de la palabra*, Madrid, Alianza editorial.
- Di Sciullo, A. M. & E. Williams(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Cambridge, The MIT Press.
- Di Sciullo, A. M. & S. T. Rosen(1990), "Light verb and Semi-light Verb Constructions", in K. Dziwirek et al. (eds.), *Grammatical Relations: A Cross-Theoretical Perspectives*, Center for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109-125.
- Espinosa, J.(1997), *Estructuras sintácticas transitivas e intransitivas en español*, Universidad de Cádiz., Servicio de Publicaciones.
- Grimshaw, J. & A. Mester(1988), "Light verbs and Θ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05-232.
- Hale, K. & J. Keyser(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 S. Keyser(eds.), 53-109.
- Hale, K. & J. Keyser(eds.)(1993),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The MIT Press.
- Halle, M. & A. Marantz(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Hale, K. & J. Keyser(eds.), 111-176.
- Harley, H. & R. Noyer(1998), "Mixed Nominalization, short verb movement and object shift in English", *NELS*, 28, 143-157.
- Keyser, S. J & T. Roeper(1992), "Re: the Abstract Clitic Hypothesis", *Linguistic Inquiry*, 23, 89-125.
- Kratzer, A.(1994), "The Event Argument and the Semantics of Voice", incomplete monograph manuscript (chapters 1 and 2).
- Kwak, J. Y.(2003), "Aproximación sintáctica a las construcciones con verbo de apoyo", Ph.D Dissertation,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Marantz, A.(1997), "No Escape from Syntax. Don't Try Morphological Analysis in the privacy of Your Own Lexicon", in A. Dimitriadis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Penn Linguistics Colloquium, U.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2, 201-225.
- Masullo, P. J.(1996), "Los sintagmas nominales sin determinante: una propuesta

- incorporacionista”, en I. Bosque (ed.), 169-200.
- Mendikoetxea, A.(1997), “Clitics as AGR, and pro in finite clauses”, *Proceedings of the IV Colloquium on Generative Grammar* (Tarragona, 15-18 March 1994), 84-111.
- O’Grady, W.(1988), “The Syntax of Idiom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279-312.
- Otero, C.(1999), “Pronombres reflexivos y recíprocos”, I. Bosque & V. Demonte (eds.), 1427-1517.
- Saito, M.(1992), “Long distance scrambling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69-118.
- Saito, M. & H. Hoshi(1994), “Japanese Light Verb Construction and the Minimalist Program”, ms. Univ. of Connecticut.
- Van Hout, A. & T. Roeper(1998), “Events and Aspectual Structure in Derivational Morphology”, *MITWPL*, 32, 175-200.

곽재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유럽학대학 스페인어과

E-mail: jykpat0@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7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07년 10월 15일